現代國語의 先語末語尾에 對한 構造的 研究

—特히 排列의 차례를 中心으로—

高 永 根

Ⅰ. 問題의 提起
Ⅱ. 語尾構造體의 確認
Ⅲ. 排列의 차례
Ⅳ. 綜 合 論
Ⅴ. 構造體의 動搖
Ⅵ. 結 論(展望)

Ⅰ. 問題의 提起

本論은 現代國語의 用言의 形態部[1]를 分析하여 屈折法에 依存하는 이른바 補助語幹의 排列(arrangement)의 차례(order, 序列)와 그들의 分布(distribution)狀況을 構造的으로[2] 살펴 보고 文法的 要素[3]의 辭典 登錄에의 基準 檢討를 重要한 目的으로 定한다. 또, 그들의 動搖狀況도 附隨的으로 言及될 것이다.

이러한 作業은 從來에도 試驗된 바 없지 않았으나, 派生法과 屈折法을 區分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語幹과 語尾의 境界가 明確하지 않았던 것과 排列의 차례와 分布狀況을 有機的으로 關聯짓지 못했음은 勿論, 形態部의 正確한 分析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結果的으로 滿足할 만한 成果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4] 事實上 이러한 問題는 形態部의

---

[1] 이곳의 形態部(morphème)란 意味部(sémantème)에 對立하는 것으로서 흔히 말하는 最少의 有意的 單位인 morpheme(形態素)과는 뜻이 다르다. cf. J. Vendryes, *Le Langage* p. 68.

[2] 現代言語學에 있어서 『構造』의 概念은 各學派間에 多少의 差異가 있으나, 筆者는 Hjelmslev 대로 音聲이나 文字나 意味가 아니라, 말의 連鎖(the chain of speech)나 文法의 paradigm 內部에 있어서의 相互依存關係에 重點을 두려고 한다. cf. 金 芳漢, 『現代言語學에 있어서의 「構造」의 概念』 서울大學校 論文集 人文·社會科學 第12輯, 1966.

[3] 辭典에 登錄된 諸般 文法的 要素, 곧 "—시—· —었—· —느냐· —던가· —ㅂ디다" 등을 말한다.

[4] 崔 鉉培: 「우리말본」 pp.339—379, 特히 pp.352—5의 「두째목 도움줄기의 서로 어우름」 참조.

構成要素들의 本質이 釋明된 뒤에라야 着手할 수 있는 課業이긴 하나, 時制의 領域을 除外한 나머지 尊敬·謙遜·叙法(話式)[5] 등을 表示하는 要素들은 어느 程度 그 意味가 把握되었다고 생각하므로, 過去의 成果를 檢討하고 筆者 自身의 見解를 披瀝하려는 것이다.

Ⅱ. 語尾構造體의 確認

國語의 用言 構造體는 語幹 構造體인 意味部와 語尾 構造體인 形態部의 두 部分으로 나눌 수 있다. 語幹 構造體는 單一 語根으로 構成될 수 있고 여기에 使動·被動·強勢의 여러 補助語根(接尾辭)이 붙어 複合的 構造를 形成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語尾構造體에 있어서도 하나의 語尾로 構成될 수도 있고, 다시 語幹과 語尾 사이에는 補助語幹이라 불리는 것들이 붙어 複離한 構造를 形成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用言 構造體를 語幹과 語尾의 두 部分으로 나누는 基準은 派生法(derivation)과 屈折法(inflection)이다. 派生法에 依存하는 接尾辭들은 接尾되는 語根의 數爻가 制限되어 있으며, 그 意義 또한 內的 곧 語彙的임에 對하여 屈折法에 依存하는 語尾들은 語幹의 種類에 制限 받음이 없이 두루 붙으며, 그 意味는 恒常 外的 곧 文法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派生法의 接尾辭들은 造語論의 所管이요, 屈折法의 語尾들은 活用論의 所管인 것이다.[6] 그런데 過去의 文法家들은 派生法의 接尾辭와 屈折法의 語尾들을 混成하여 모두 活用의 範疇 속에 넣어 處理했기 때문에, 語幹과 語尾의 構造的 樣相이 明確하지 않았던 것이다.[7]

이상에서 析出한 語尾構造體는 單語의 끝에 쓰이는 語末語尾(final ending)와 中間에 쓰이는 先語末語尾(prefinal ending)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基準을 말하면, 語末語尾는 그 다음에 다른 語尾가 오지 않아도 單語를 形成할 수 있는 閉鎖形態素(closing morpheme) 임에 反하여 先語末語尾는 다음에 반드시 語末語尾를 要求하는 開放形態素(nonclosing morpheme)인 點이다.[8]

다시 先語末語尾는 後行語尾(語末 또는 先語末)와의 結合의 程度에 따라, 制約을 별로 받지 않는 것과 制約을 甚하게 받는 것과 그 中間에 位置하는 것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하시었겠사옵닌다"라는 하나의 言述(utterance)을 取하여 보기로 한다.[9]

---

[5] 筆者는 最近 先語末語尾에 依支하는 叙法을 論한 일이 있다. cf.『現代國語의 叙法體系에 對한 研究』(國語研究, 第15號, 1965) 앞으로『叙法研究』라 略稱한다. 이와 關聯한 斷片的인 言及은『現代 國語의 直說法에 對하여』(「國語國文學」No. 31)를 참조.

[6] 派生法과 屈折法에 對한 理論的 說明은 cf. E. Nida, *Morphology* pp. 99—100.
國語에 있어서의 위의 理論에 對한 實踐的 論述은 다음의 것이 있다.
安秉禧:『十五世紀國語의 活用語幹에 對한 形態論的 研究』,「國語研究」第7號 (1959).
許雄:『西紀 十五世紀 國語의 使役·被動의 接辭』,「東亞文化」第二輯 (1964).

[7] 代表的인 것으로 崔鉉培: 前揭書, p. 339 이하.

[8] E. Nida: 前揭書, p. 85.

[9] 이 言述 안에 들어 있는 各 形態素의 文法的 意義에 對하여는 다음 章에서 論述하게 될 것이다.

"-시었겠-"의 세 가지 形態素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반드시 必要로 하지 않고 쉽사리 遊離되어서 나타나며, 後行語尾와의 結合에 制約이 적고, 辭典[10]에도 各 要素가 獨自的으로 登錄되고 있다. 이러한 自由로운 分離可能性을 참작하여 「分離的 先語末語尾」라 부르기로 한다.

다음으로 "-ㅂ닌다"는 語末語尾 "-다"를 除外하면 세 개의 形態素 "-ㅂ니ㄴ-"으로 分析되는데 이들은 獨自的으로 語幹에 接尾되는 일은 별로 없고 서로 붙어서 하나의 單位로 나타나는 것이 普通이며, 後行語尾와의 制約을 많이 받으며, 「큰사전」에도 세 要素가 붙은 채로 登錄되고 있다. 이와 같은 非分離的 性質을 참작하여 「膠着的 先語末語尾」라 부르기로 한다.

한편 위의 두 가지 先語末語尾의 中間에 자리잡는 "-사오-"[11]는 경우에 따라 分離的으로도 나타나고, 膠着的으로도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이 形態素는 兩者의 性格을 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點을 참작하여 「隨意的 先語末語尾」라 일컫기로 한다.

이상 우리는 주로 「큰사전」을 中心으로 先語末語尾를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보았다.

Ⅲ. 排列의 차례

先語末語尾의 놓이는 차례는 아주 固定되어 있다. 곧 이들이 서로 結合할 때는 一定한 차례가 있어서 그 先後를 絶對로 바꿀 수 없다.[12] 統辭論에서는 形態素의 차례가 어느 程度 可變的이어서 차례를 바꾸어도 글월의 意味를 根本的으로 바꾸어 놓지 못하나, 形態論에서는 語根에 붙는 接尾辭나 語幹에 붙는 語尾의 차례가 不變的이어서, 차례를 바꿈은 單語를 전혀 理解할 수 없는 (unintelligible)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13] 이를테면, "나는 학교로 간다"를, "간다, 나는 학교로; 학교로, 나는 간다"로 함은 前者의 例요, "선생님들"을 "*선생들님"으로, "잡으시었다"를 "*잡았으시다"로 함은 後者의 例다. 國語에서는 派生法에서나 屈折法에서나 매우 複雜한 樣相을 띠고 나타난다. 이제 屈折法의 先語末語尾가 한 單語 가운데서 어떠한 「차례」(order)로 排列되는지 具體的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14]

세 동아리의 先語末語尾 가운데서 제일 먼저 놓이는 것은 分離的 先語末語尾 "-시었겠-"이다. 차례가 앞선다 함은 語幹에 가까이 자리잡음을 말한다. 이 가운데서는 尊敬의 "-(으)시-"가 가장 앞선다. 또 이것은 後行하는 語尾와의 制約을 거의 받지 않는다.[15] 곧 "-(으)

---

[10] 한글학회에서 지은 「큰사전」을 말한다. 앞으로 「큰사전」이라 일컫는다.

[11] "—사오—"는 많은 異形態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對하여는 다음 章에서 말할 것이다.

[12] 崔 鉉培敎授도 이른바 補助語幹의 連結에는 一定한 차례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 國語의 重要한 「본」이 된다는 말을 하였다. (前揭書, p. 352).

[13] U. Nida: 前揭書 p. 78.

[14] 筆者는 前揭拙稿 『叙法硏究』에서 先語末語尾의 차례를 論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叙法 形態素의 차례를 보이기 爲한 暫定的인 試案에 不過한 것이었다. (p. 84)

[15] 이른바 補助語幹과 語尾와의 結合에 對하여는 崔敎授의 前揭書, pp. 335—376 참조. 앞으로는 特別히 밝히지 않는다.

시-"는 大部分의 語尾와 自由롭게 結合된다.[16]

"-(으)시-"의 다음에 놓이는 것은 過去時制의 "-었-(았·였)"이다. 이 過去時制의 "-었-"은 理論上으로 現在·未來에 對立하여 「時制」(tense)의 範疇를 形成하므로, 現在時制의 "-는(ㄴ)-", 未來時制의 "-겠-"과 차례가 같은 것으로 解釋한다. 차례가 같다고 하여 後行語尾와의 結合마저 같다는 것은 아니다. "-는(ㄴ)-"은 해라體의 說明法, 해라·하오體의 感嘆法의 語尾들 위에서만 나타나고, (먹는다, 한다; 먹는구나; 먹는구료)[17] "-겠-"은 後行語尾와의 結合에 있어 "-었-"보다 더 制約的이다. 단지 이 세 形態素를 時制의 觀點에서 차례가 같다고 보아 한 묶음 속에 넣은 것이다. 實踐上으로는 "-는(ㄴ)-"이 다른 두 形態素와 恒常 排他的이어서 차례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었-·-겠-" 相互間은 한 單語 속에 共存할 수도 있어 차례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었었-·-었겠-)[18]

"-었-"이 "-(으)시-"보다 뒷자리를 차지함과 併行하여 "-(으)시-"에 比하여 後行語尾와의 結合에 制約이 약간 있다. 終結語尾의 共同·命令·許諾·約束은 勿論, 副詞形 轉成語尾全部와 連結語尾의 意圖形 "-(으)려-·-고자", 到及形 "-도록"과는 結合되지 못한다.

"-었-"의 다음에 놓이는 것은 "-겠-"이다, 이것은 혼자서 쓰일 때는 普通 未來時制[19]로 認定되어 "-는-·-었-" 등과 같은 차례에 屬한다고 할 수 있으나, (前述) "-었-"과 結合되면 意味가 單一化하여, 推測의 用法만 지니는 것으로 믿는다.[20] "-겠-"이 "-었-"보다 뒤에 자리잡음과 併行하며 後行하는 語尾와 結合함에 있어 더 많은 制約이 뒤따른다. "-겠-"은 "-었-"이 結合하지 못하는 위의 語尾 이외도, 推測法의 "-(으)리-",[21] 確認法의 "-것-"[22], 原則法의 "-(으)니-",[23] 其他 "ㄹ"로 始作하는 많은 數交의 連結語尾 "-(으)ㄹ진대, -(으)ㄹ지라도, -(으)ㄹ망정" 등과도 結合을 許容하지 않는다.

여기 한 가지 注意하여 둘 것이 있다. 우리의 檢討 結果에 依하면, "-겠-"은 "-었-"보다 좁은 分布 속에 나타나므로, "-겠-"이 後行함은 當然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文法家 가운데는 "-겠-"이 先行하는 "-겠었-"을 「지난적의 장차」라 하여 設定하는 일이 있다.[24]

---

[16] 文體法 가운데서 話者와 關聯하여 쓰이는 約束法이나 共同法은 "-시-"의 挿入을 要求하지 않는다. (*하시마, *하십세, *하시자, *하시세)

[17] 筆者가 前揭拙稿에서 "-는(ㄴ)-"이 分布가 넓다고 한 것은 차례의 같음만을 考慮한 것이었다. (p. 2 脚註 7 참조), 차례와 分布는 分離해서 생각함이 좋을 것이다.

[18] 이때는 意味가 달라진다고 思料한다. (後述)

[19] "-겠-"이 혼자서 쓰일 때는 單純한 未來時制 이외 여러 가지 用法을 지닌다. (cf. 崔 鉉培, 前揭書, pp. 348—349) 이에 對해서는 別稿를 草하려 한다.

[20] 이러한 일은 "-겠-"과 文法的 意義가 비슷한 "-(으)리-"의 用法을 參考하면 알 것이다. cf. 拙稿 『叙法硏究』 pp. 75—81.

[21] 前揭拙稿 : p. 29, p. 80.

[22] 前揭拙稿 : pp. 85—86.

[23] 前揭拙稿 : p. 75.

[24] 鄭 寅承 : 표준고등말본 p. 117.

이는 理論上으로는 可能할지 몰라도, 實踐上으로는 不可能하다. 좁은 分布의 "-겠-이 넓은 分布의 "-었-"을 先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分離的 先語末語尾의 세 形態素의 차례는 後行語尾와의 結合上의 制約이 가장 적은 것이 앞서고, 制約이 많은 것이 가장 끝에 놓인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이들 세 形態素는 程度의 差異는 있지마는, 大部分의 語尾와 結合되는 넓은 分布를 보여 주므로, 이의 自由로운 分離可能性을 참작하여, 獨自的으로 그 意味를 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큰사전」의 措處는 妥當한 基準에 依해서 取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第Ⅱ章 참조)

앞에서 檢討한 分離的 先語末語尾 다음에 直接 놓이는 것은 隨意的 先語末語尾이다. 차례로 보아서는 이것부터 應當 말해야 할 것이나, 論述의 便宜를 爲하여, 膠着的 先語末語尾를 먼저 말하겠다.

膠着的 先語末語尾 가운데서 가장 앞서는 것은 尊卑法(恭遜法)의 합쇼體를 規定 짓는 "-(으)ㅂ-"이다. 이는 從來에 謙遜의 補助語幹의 하나라고 생각하여 왔지만,[25] 이것과는 分明히 區別된다. "합니다"를 "하옵니다"와 比較하면, "-옵-"은 "-오-"와 "-ㅂ-"으로 分析됨을 보아서이다. 그러므로 "-오-"는 謙遜 表示의 한 異形態일 뿐이고, (後述) "-ㅂ-"만이 母音 아래 쓰이는 합쇼體의 先語末語尾인 것이다. 이것은 앞 音節의 마지막 音韻이 子音이냐 母音이냐에 따라 分揀的[26] 으로 쓰이는 것 이외, 後行하는 語尾가 分揀的인 것일 때에는 "-(으)오-"로 變異를 일으키게 된다.[27] 이를테면, "갑니다, 먹읍니다" 등의 "-(으)ㅂ-"은 分揀的인 "-(으)리-" 앞에서는 "가오리다, 먹으오리다"가 된다.

이것은 前述한 바도 있지만, 합쇼體에서만 나타나는 制限된 分布를 보여 준다. 합쇼體의 說明法(합니다・합디다・합닌다・합딘다・하오리다), 疑問法(합니까・합디까・하오리까), 感嘆法(합니다그려・합디다그려),[28] 命令法(합쇼・합시오), 共同法(합시다・합시다요), 約束法(하오리다), 許諾法(합쇼그려)[29]와 같이 합쇼體의 일곱 가지 文體法에 빠짐없이 나타난다. 尊卑法의 네 가지 等分 가운데서 該當 尊卑法을 特徵 짓는 要素가 獨自的으로 析出되는 것은 합쇼體뿐이다.[30] 다른 尊卑法은 語末語尾가 文體法과 함께 尊卑法의

---

[25] 崔 鉉培 : 前揭書, p. 353.

[26] 崔 鉉培敎授는 媒介母音 "으"를 要求하는 部類의 모든 語尾(語末・先語末)를 「分揀的」이라고 하고 있다. (前揭書, p. 160)

[27] 前揭拙稿 : 『叙法研究』 p. 27.
"-(으)ㅂ-"의 異形態 "-(으)오-"는 謙遜의 "-(으)옵-"의 異形態와는 構造的 樣相이 다르다. 이를테면, "가옵고"의 "-옵-"이 分揀的인 語尾 앞에서는 "가오오니"로 먼저 活用되고, 다시 "가오니"가 된 것이다.

[28] 說明・疑問・感嘆의 세 가지 文體法에 對하여는 前揭拙稿, p. 14, 圖表 참조.

[29] 命令・共同・約束・許諾의 네 가지 文體法에 對하여는 李 熙昇敎授의 새고등문법, pp.104—5.

[30] 中期語에서는 ᄒᆞ쇼셔體와 ᄒᆞ야셔體의 說明法과 疑問法에 걸쳐 尊卑法(恭遜法)의 要素가 달리 析出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f. 安 秉禧,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學術誌(建國大學校 第六輯. 1965)

特徵을 드러낼 뿐이다.[31]

分離的先語末語尾를 檢討할 때 본 바와 같이, 尊敬의 "-(으)시-"는 어떠한 先語末語尾보다 앞섬을 보았는데, 합쇼體의 命令·共同·許諾의 세 가지 文體法에서는 "-시-"가 "-(으)ㅂ-"보다 後行함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합시다·합쇼·합쇼그려"의 세 語形에서 共通的으로 析出되는 것은 "-ㅂ시-"이다. "-ㅂ-"은 다른 文體法에서 볼 수 있는 합쇼體의 規定要素일 것이고, (前述) "-시-"는 尊敬의 意味와는 無關한 要素가 아닐까 한다. 그것은 세 가지 文體法이 意味上의 共通性을 지니고 있음에 말미암는다.[32] 또 이곳의 "-시-"는 앞서 본 尊敬의 "-(으)시-"와는 構造的 樣相이 다르다. 後者는 先行하는 語幹의 받침의 有無에 따라 媒介母音 "으"를 要求하는 分揀的인 要素이지만,[33] 前者는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通用的인 要素라는 點이다. 이것이 分揀的이 되려면, 앞서 든 세 語形이 "*하오시다, *하오쇼, *하오쇼그려"로 되어야 할 것이다.

합쇼體의 先語末語尾에 뒤따르는 것은 直說法 "-니-"(ㄴ)이다. 이 "-니-"는 한편으로는 回想法 "-디-"(더)와 對立하여 「話式」의 範疇를 形成하고,[34] 兩者가 함께 또 「叙實法」(fact-mood)을 構成하며, 또 이들은 叙想法(推測法) "-(으)리-"(ㄹ)와 對立하여 「叙法」(mood)의 範疇를 이루고 있다.[35]

이들 叙法 形態素는 합쇼體의 "-(으)ㅂ-"보다 뒤에 선다는 點과 併行하여 語尾와의 結合에도 制約이 있다. 直說法과 回想法은 說明·疑問·感嘆의 세 가지 文體法에 局限하고, (합니다, 합디다; 합니까, 합디까; 합니다그려, 합디다그려) 推測法은 說明·疑問의 두 가지 文體法에 局限한다. (하오리다, 하오리까) 그렇다고 이들이 앞의 "-(으)ㅂ-"과 같이 한 가지 尊卑法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네 가지 尊卑法에 걸쳐 다 나타난다 단지 文體法의 範圍가 넓고 좁을 뿐이다.

推測法(叙想法) "-(으)리-"는 用法 面에서는 앞서 말한 "-겠-"과 別般 差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後者가 前者의 한 領域을 浸蝕하고 있다는 點에서,[36] 하나가 生產性을 띠었다면 하나는 非生產的이라 할 것이다.[37] 어쨌든 兩形은 現代前期國語에만 局限하여 보아도 共存形(rival forms)임이 틀림없다. 이 두 要素가 한 單語 속에 共存하지 못한다는 點을 考慮하면 同一範疇의 一員임을 알 수 있으나, 한 單語 속에서 차지하는 차례를 살펴 보면

---

31 이에 對해서는 뒷날 자세한 言及이 있을 것이다.

32 이에 對해서는 現代國語의 文體法을 詳論하는 자리로 미룬다.

33 媒介母音의 用法에 對하여는 보다 根本的인 方面에서 再考해야 할 것이다. cf. 金 桂坤, 『調聲母音 "으"에 對하여』 「國語國文學」, No. 16.

34 前揭拙稿 : 『叙法硏究』 pp. 95—97.

35 前揭拙稿 : 『叙法硏究』pp. 90—91. 세 形態素의 異形態에 對하여는, pp. 17—24, pp. 27—29 참조.

36 前揭拙稿 : 『叙法硏究』, p. 102.

37 "-겠-"과 "-(으)리-"는 L. Bloomfield의 말을 빌면 "rival forms"이라고 할 것이다. (*Language* p. 394).

"-겠-"은 "-었-" 바로 뒤에 놓이고, "-(으)리-"는 "-(으)ㅂ-"의 異形態[38] "-(으)오-" 뒤에 놓이므로, 그 構造的 樣相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倂行하여 "-겠-"은 "-(으)리-"보다 넓은 分布 속에 나타난다. (前述)

直說法의 "-나-"의 바로 뒤에 놓이는 것은 原則法 "-ㄴ-"(니)이다. 原則法 "-ㄴ-"(니)은 確認法의 "-것-"(엇)과 함께 「強調的 叙法」(intensive mood)을 이루고 있다.[39] 이들 強調의 叙法은 叙實·叙想의 兩叙法에 後行한다는 點과 倂行하여 다른 語尾, 곧 語末語尾와의 結合에 制約을 받는다, 이 叙法은 說明法에서만 確認된다. 原則法은 해라·하게·합쇼의 세 尊卑法에서, 確認法은 해라體에서 各各 說明法에 局限하여 나타날 따름이다.[40] (하느니라, 하느니, 합닌다; 하더니라, 하더니, 합딘다; 하것다, 하렷다)

이상 膠着的 先語末語尾의 세 가지 形態素들의 차례와 그 分布를 살펴 보았다. 이들도 앞의 分離的 先語末語尾와 같이 分布가 넓은 것이 가장 앞서고 좁은 것이 뒤에 선다. 더우기 맨 끝자리에 놓이는 先語末語尾와, 語末語尾가 서로 만나는 文體法이 說明法인 것은 注意할 만하다. 이들 세 形態素는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極少數의 制限된 語尾들[41] 과만 結合되는 좁은 分布를 보여 주므로,[42] 一定한 分析基準에 依支하지 않으면 쉽사리 析出되지 않는다.[43] 이는 分離的 先語末語尾가 語尾 種類의 如何에 얽매이지 않고 두루 쓰이어서 쉽사리 分離되는 것과 좋은 對照가 된다. 따라서 「큰사전」의 措處는 이와 같은 膠着的 性質을 참작하여 綜合的으로 그 意味를 말했다는 點에서 우선[44] 妥當性을 잃지 않았음을 말하여 둔다. (第Ⅱ章 참조)

分離的 先語末語尾와 膠着的 先語末語尾 사이에 놓이는 것은 隨意的 先語末語尾이다. 이것은 先行하는 分離的 先語末語尾와 後行하는 膠着的 先語末語尾 사이의 틈을 메꾸어 주는 橋樑的 存在이다. 謙遜의 補助語幹으로 불리고 있는 이 先語末語尾는 경우에 따라, 많은 異形態를 가지고 있다. 後行하는 語尾가 通用的이면 "-(으)옵-, -자옵-, -잡-, -사옵-, -삽-" 등으로, 分棟的이면 "-(으)오-, -자오-, -사오-" 등으로 各各 活用한다.

---

[38] 原則法의 異形態에 對하여는 前揭拙稿 p. 26, 確認法의 異形態에 對하여는 前揭拙稿, pp. 33—31.

[39] 前揭拙稿 : p. 91.

[40] 原則法과 確認法의 分布에 對하여는 前揭拙稿 p. 14 圖表 참조.

[41] 大部分은 終結語尾의 語末 또는 先語末語尾이고, 非終結語尾의 "-ㄴ"(는, 는지, 던) "-니"(더니)에 局限된다.

[42] 直說·回想·原則·推測의 叙法 形態素는 경우에 따라 語末語尾와 化合(amalgame)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네, -데, -니, -리) 이에 對하여는 前揭拙稿, 『叙法硏究』 pp. 18—19, p. 25, p. 27 와 『直說法硏究』 p. 13 참조.

[43] 이 말은, 우리의 日常談話生活에서 自由롭게 遊離되어 나타나지 않음을 意味하는 것인데, 假令 "-(으)시-"는 다음에 다른 先語末語尾가 없어도 語末語尾와 結合되나, (가시며) 直說法 "-니-"는 반드시 합쇼體의 "-(으)ㅂ-" 아래에만 쓰이며 確認法의 "-엇-"은 推測法 "-리-" 아래만 쓰임과 같은 것이다.

[44] 이 問題는 派生法의 接尾辭의 辭典登錄에의 基準 檢討와 함께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謙遜의 "-(으)옵-" 등이 分離的 先語末語尾 "-겠-"에 後行한다는 차례와 併行하려면, "-겠-"보다는 좁은 分布 속에서, "-(으)ㅂ-"보다는 넓은 分布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으)옵-"은 終結語尾와 非終結語尾에 다 걸치므로, 終結語尾에 局限하는 합쇼體의 "-ㅂ-"보다 分布가 넓은 것은 明白하다. 그러나 "-겠-"보다는 반드시 좁지 않다. "-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後行語尾와 結合할 때 甚한 制約을 받는다. 非終結語尾에서는 "-겠-"의 非結合形이 "-(으)옵-"의 그것에 比하여 越等 優勢하다.[45] 이에 對하여 終結語尾에서는 "-겠-"의 非結合形이 "-(으)옵-"의 그것을 上廻하고 있으나,[46] 非終結語尾의 差異와 比할 바가 아니다. 終結語尾 가운데서 謙遜의 先語末語尾와 結合하는 것은 합쇼體뿐이기 때문이다. (하옵니다, 하옵니까, 하옵소서, 하옵디다, 하옵디까, 하옵닌다, 하옵딘다) 結果的으로 "-(으)옵-"이 "-겠-"보다 넓은 分布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47] 지금까지의 事態와는 相反된 樣相을 發見하게 된다. 곧 차례는 앞서면서도 分布는 좁다는 것이다. 이러한 矛盾을 合理化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基準設定이 要望된다. 現代前期國語[48]에만 局限해 보더라도, "(으)옵"은 先行하는 "-겠-"에 比하여 分布가 넓기는 하나, 生產性을 띠고 있지는 않다. "-겠-"은 分布上의 制約을 받기는 하여도 매우 生產的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으)옵-"은 文語體的인 特殊한 文章에만 쓰이고, 口語體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추는 段階에 있다. 따라서 "-(으)옵-"이 "-겠-"보다 後行함은 分布의 넓음이라는 基準에만 얽매어 說明하기 보다는 生產的이 못 된다는 事實로써 說明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차례의 先後를 決定하는 데는, 單純히 分布의 넓고 좁음에만 依存할 것이 아니라, 非生產性에도 留意할 必要가 있다. 곧 生產性의 多寡가 차례의 先後에 併行하는 한 基準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留意할 일이 있다. "-(으)시-"는 "-(으)옵-"보다는 훨씬 앞서는 것으로 確認되었는데, 前者가 後者의 뒤에 서는 統合形式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9] 그 要旨를 말하면 "-(으)옵-·-(으)압-"의 앞이나 뒤에 "-(으)시-"가 붙으면 한층 더 尊敬하는

---

[45] "-겠-"이 못 붙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副詞形과 "ㄹ"로 始作하는 多數의 語尾들과 그 밖에도 "-(으)ㄴ들, -(으)ㄴ지라, -어야, -(으)ㄴ들, -고자, -자(連發), -다가, -도록, -고(時間羅列), -어(同)"등 많이 들 수 있으나, "-(으)옵-"이 못 붙는 것은 "-고(副詞形), -(으)락" 등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cf. 崔 鉉培, 前揭書 pp. 358—365, pp. 367—373.

[46] "-겠-"이 못 붙는 것은 네 尊卑法의 네 가지 文體法(命令·共同·約束·許諾)에 걸치므로, "16"이 되나, "-(으)옵-"이 못 붙는 것은 해라·하게·하오의 세 尊卑法의 "7"가지 文體法에 걸치므로 "21"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前述, 합쇼體의 "(으)ㅂ" 참조)

[47] "-(으)옵-" 등은 實際에 있어서는 "-겠-"에 先行하는 "-었-" 보다 分布가 넓다. "-었-"의 非結合形과 "-(으)옵-" 등이 結合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例로 "-었-"이 못 붙는 副詞形과 結合됨을 보아서이다. (하와, 하옵게, 하옵지, 하옵고) 그러나 "-(으)옵-"의 차례는 分布에 比例하는 것은 아니므로, 隣接한 "-겠-"과 直接 比較한 것이다.

[48] 現代前朝國語의 時期的 特性에 對하여는 前揭拙稿『叙法硏究』pp. 5~9, 『直說法硏究』 p. 15 참조.

[49] 李 熙昇 : 前揭書 p. 113.

공대말 "-(으)옵시-, -(으)시옵-; -(으)압시-, -(으)시압-"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첫째 "-(으)시-"가 "-(으)옵-"보다 차례에 있어 先行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檢討 結果에 依하면, 先語末語尾의 자리란 固定되어 있어서 位置의 置換을 許容하지 않았다. 設令 許容되는 일이 있더라도 "-(으)시-"가 뒤에서는 "-(으)옵시-"와 같은 統合은 實際로 쓰이는 일은 없다.[50]

그것은 어쨌든 謙遜의 "-(으)옵-"은 非終結語尾에서는 넓은 分布 속에 나타나서 後行語尾와의 結合에 큰 制約이 없기 때문에, 分離的 性格을 考慮하여 우선 分離的先語末語尾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終結語尾에서는 分布가 좁아서 極히 制限된 합쇼體의 경우에만 限定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膠着的先語末語尾에 넣을 수 있다. 곧 이것은 分布의 넓고 좁음을 兼했다고 할 것이다. 붙고(膠着) 떨어짐(分離)이 一定하지 않으므로, 隨意的先語末語尾로 불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큰사전」이 非終結語尾에서는 分離的 性格을 考慮하여, 語尾와 함께 싣지 않고 異形態를 獨立시켜 用法을 說明하고 있으며, 終結語尾에서는 分布의 좁음을 考慮하여 膠着的 先語末語尾에 붙여 登錄하고 있음은 매우 穩當한 措處로 생각된다. (第Ⅱ章 참조)

Ⅳ. 綜 合 論

앞에서 살펴 본 세 가지 先語末語尾의 各 構成要素들을 整理하여 차례 劃定을 明白히 하고, 論議된 바를 다시 綜合함으로써, 語尾構造體의 特徵을 알아 보고자 한다.

앞에서 든 言述(utterance) "하시었겠사옵닌다"는 假想的인 것이다. (第Ⅱ章 참조) 그것은 이 言述이 잘 쓰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가운데는 相互排他的인 要素가 共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原則法의 "-ㄴ-"(니)은 "-었-"과는 結合되지마는, (하였느니라, 하였읍닌다) "-겠-"과는 結合되지 못한다. (*하겠느니라, *하겠읍닌다) (註 23 참조) 그런데 위의 言述에는 "-겠-"과 "-ㄴ-"(니)이 共存하고 있다. 筆者가 이런 假想形을 取한 것은 두 要素가 비록 排他的이긴 하나, 單語 가운데서 차지하는 차례가 다름을 考慮하여서이다.[51] "-겠-"은 "-었-"의 뒤에 놓임에 對하여 "-ㄴ-"(니)는 "-니-"(느)(直說法)의 뒤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 假想形은 原則法이 包含되지 않은 "하였겠사옵니다"와 推測의 "-겠-"이 包含되지 않은 "하였사옵닌다"의 두 言述을 各 形態素의 자리잡는 차례에 따라

---

[50] 崔 鉉培敎授도 이러한 統合을 "옛적 형식에 속한 것이거나……현행하는 말에서의 예외적 용법……"이라고 한다. (前揭書 p. 354).

[51] 차례가 같으면 排他的이고 同時에 範疇가 같다. (cf. E. Nida, 前揭書 p. 110) 그러나 逆은 眞이 아니다. 範疇가 달라도 排他的인 例가 있다. 假令 中世國語의 尊敬의 "-(으)시-"는 冠形詞形이나 名詞形을 除外한 終結 및 連結語尾에 쓰이는 "-오/우-"와 結合되는 일이 없다. (*-샤니, *-샤라 등) (cf. 許雄, 『揷入母音攷』, 서울大論文集, 第七輯 p. 114) 語尾構造體의 全般으로 보면 "-시-"는 "-오/우-" 보다 앞선다. 이들이 排他的이라 하여 範疇가 같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곳의 "-니-"와 "-겠-"도 이와 併行되는 사실로 보인다.

排列해 놓은 것이다.

言述 "하시었겠사옵닌다"에서 各 先語末語尾의 차례를 番號로써 劃定하여 보기로 한다.

하+시 었 겠 사오 ㅂ 니 ㄴ+다
1 2 3 4 5 6 7

崔 鉉培敎授가 들어 보인 例에서 派生法에 依存하는 被動 및 使動을 除外한 屈折法의 補助語幹의 連結 차례를 보면 "시었겠읍더이다"로 되어 있다. (〰는 筆者)[52] 崔敎授는 첫째 謙遜의 "-(으)옵-"과 尊卑法의 합쇼體를 規定 짓는 "-(으)ㅂ-"을 同一視하였고, 둘째로 "-더-" 이하에 오는 先語末語尾를 알지 못하였고, 세째로는 現代國語에서는 文語體의 價値를 띤 것으로 認定되는 形式[53]을 論議의 對象으로 했기 때문에, 結果的으로 올바른 차례의 劃定을 하지 못하여, 다섯 個의 先語末語尾만 말하게 되었다. 또 確認法의 "-것-"은 우리의 차례 劃定에 依하면 일곱 번째로 原則法과 함께 強調의 叙法을 形成하는 것이었는데, 推測의 "-겠-"과 같은 동아리에 包含시킨 것도 重要한 잘못이다.[54]

이상과 같은 차례 劃定으로 우리는 用言의 語尾構造體가 反映하는 先語末語尾는 모두 일곱 가지이며, 同時에 이들 語尾는 그만큼 數爻의 文法範疇를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55]

다음에 各 차례가 보여 주는 文法範疇와 該當 形態素들을 對當시킨다.[56]

ㄱ. 分離的 先語末語尾

(1) 尊敬 : -(으)시-

(2) 時制 : -는-(現在), -었-(過去), -겠-(未來)

(3) 叙想(推測) : -겠-

ㄴ. 隨意的 先語末語尾

(4) 謙遜 : -(으)옵-

ㄷ. 膠着的 先語末語尾

(5) 尊卑法(합쇼體) : -(으)ㅂ-

(6) 叙法 : -ㄴ-(直說), -더-(回想)<話式, 叙實法>, -(으)리-(叙想法)

(7) 強調法 : -(으)니-(原則), -것-(確認)

이상과 같은 일곱 가지의 先語末語尾가 한꺼번에 統合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 속에는 서로 排他的인 要素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前述) 實際로는 여섯 가지가 나타남이 最

---

52 "들리히시었겠읍더이다"를 참조 (前揭書, p. 352).

53 앞의 "-더이다"는 "-나이다, -(으)오이다"와 함께 하소서體로 불리고 있다. cf. 李熙昇, 前揭書, pp. 105—9.

54 "-겠-"과 "-것-"을 다 같이 5番으로 定하고 있다. (그리하시겠읍니다, 너도 보았것다) 兩者는 앞의 "-겠-"과 "-니-"와 같이, 排他的이긴 하나, 차례가 다른 것이다.

55 形態素의 차례가 같으면 그들대로 뭉쳐서 하나의 文法範疇를 形成하고 차례가 다르면, 文法範疇가 달라진다. cf. U. Nida, 前揭書 p. 110

56 便宜上 該當 語尾의 代表的 形式(basic form)만 말한다.

大의 受容限界이다. 여섯가지의 先語末語尾를 다 包含할 수 있는 것은 합쇼體의 直說說明法(하시었겠사오ㅂ니다 / 1 2 3 4 5 6)과 原則說明法(하시었사오ㅂ니느다 / 1 2 4 5 6 7)이다. 勿論 이들이 합쳐서 假想形 "*하시었겠사옵닌다"가 再構되어 일곱 개가 나타난다. 그것은 어쨌든 합쇼體의 說明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은 "-(으)ㅂ-"이 합쇼體에서만 나타나고. 일곱 번째의 強調의 叙法이 說明法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說明法을 除外하고도 합쇼體에서는 疑問法과 感嘆法에서 여섯 가지가 統合될 수 있다. 그것은 두 文體法에서 原則法의 "-니-"가 빠지는 代身에"-겠-"의 結合이 可能하기 때문이다.(하시었겠사오ㅂ니까, 하시었겠사오ㅂ니다그려 / 1 2 3 4 5 6 / 1 2 3 4 5 6)

합쇼體를 除外한 나머지 尊卑法은 普通 넷 이상의 統合을 許容하지 않는다. 일곱 개의 先語末語尾 가운데서 "-(으)옵-"과 "-(으)ㅂ-"은 합쇼體에만 보이는 것이요, "-겠-"과 "-니-"는 恒常 排他的이기 때문이다. (하시었겠네요, 하시었느니, 하시었느니라 / 1 2 3 6 / 1 2 6 7 / 1 2 6 7) 해라體의 推測確認法은 셋만 統合된다. (하시리었다 / 1 6 7) 주로 해라體의 直說說明法과 結合되는 現在時制의 "-는-"(ㄴ)은 그 뒤에 어떤 先語末語尾도 要求하지 않으므로, 둘 이상의 統合이 不可能하다. (하시느다 / 1 2)

非終結語尾에서는 強調叙法인 原則法과 確認法은 나타나는 일이 없고, 叙法(話式)과 形式上으로 有關하여 보이는 "-느-"(더)[57]가 語末語尾에 가장 隣接한 先語末語尾이며,(하시었겠사옵더ㄴ, 하시었겠사옵더니 / 1 2 3 4 6 / 1 2 3 4 6)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으)옵-"이 가장 뒤에 位置한다. (하시었겠사오니 / 1 2 3 4)

앞의 차례의 劃定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상과 같은 차례의 排列은 後行語尾와 制約이 가장 적은, 곧 넓은 分布 속에 쓰이는 先語末語尾가 가장 앞에 서서 語幹에 隣接해 있고, 後行語尾와 制約이 가장 많은, 곧 좁은 分布 속에 나타나는 先語末語尾가 가장 뒤에 서 있어서 語末語尾에 隣接해 있다. "-겠-"과 "-(으)옵-"의 경우처럼 차례가 앞서도 그에 反比例하여 分布가 좁은 例外的인 統合도 없지 않다. 이때는 分布의 廣狹如何보다도 生產性의 多寡에 依存함이 問題를 複雜하게 만들지 않는다. 要컨대 先語末語尾의 차례의 先後는 該當 形態素의 分布上의 制約의 多寡나 生產性의 如何에 正比例하는 것이다.

세 가지 先語末語尾의 辭典登錄에의 基準을 綜合하여 본다. 後行語尾와의 結合上의 制約이 적은 것은 該當 形態素를 分析하여 獨自的으로 登錄하고 있는데 對하여, 制約이 甚한 것은 따로 分析하지 않고, 後行形態素와 結合한 채로, 綜合的으로 登錄시키고 있다. 前者의 例는 分離的 先語末語尾 全部와 隨意的 先語末語尾 가운데서 非終結語尾에서 나타나는 謙遜의 "-(으)옵-" 등이며, 後者의 例는 膠着的 先語末語尾 全部와 終結語尾의 합쇼體에

---

[57] 筆者는 前揭拙稿『叙法研究』에서 非終結語尾에 보이는 "-느-"(더)와 終結語尾의 그것과의 사이의 關聯與否는 宿題로 남겨 두었다.

限하여 나타나는 謙遜의 "-(으)오-"이다.

Ⅴ. 構造體의 動搖[58]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은 現代國語의 語尾 構造體가 언제 어떠한 過程을 밟아 오늘에 이르렀는지, 國語의 文法(形態)史를 考慮에 넣지 않은 筆者로서는 선불리 斷定할 수 없으나, 現代前期國語의 資料들만 들추어 보아도, 動搖의 徵候들을 發見할 수 있다.

세 가지 先語末語尾 가운데서 動搖의 徵候가 顯著한 것은 隨意的 先語末語尾이다. 이것은 前述한 바도 있듯이 (第Ⅳ章 참조) 現代國語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現代前期國語의 資料[59]를 檢討할 때 對話體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文語體를 驅使하는 書簡文이나 祈禱文 같은 데서만 주로 쓰이기 때문이다.

첫째, 書簡文

『불초의 자식은……슬하를 떠나옵나이다……양위분의 탓은 아니하고저 하오나……결심한 것이오니』〈沈薰 織女 上, p. 41〉 cf. ("인제는 내외분 생전에 집을 떠나지 않겠읍니다")〈同上, p. 39〉(黑點은 筆者)

둘 다, 같은 아들의 같은 어버이에 對한 말인데, 書簡文이냐 對話文이냐에 따라, 이렇게 差異가 있는 것이다. 括弧 속의 것은 對話文인데, 黑點의 表示는 書簡文에서 "-(으)옵-"이 쓰일 수 있음을 意味한다. (떠나옵지; 않겠사옵니다, 않겠삽나이다)

둘째, 祈禱文

『이 가엾은 생명에게 건강을 주옵시고……조선의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여 줍소서』〈同, 下, p. 307〉(cf. "이 피를 뽑으셔요 다래도 뽑아 주셔요" 〈同 下, p. 393〉

祈禱文에서도 懸隔한 差異가 있다. 이상과 같은 對較에 依하여 現代國語에서는 謙遜의 "-(으)옵-"이 完全히 生命을 잃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膠着的 先語末語尾이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動搖의 싹이 보이는 것도 있고, 甚한 動搖를 일으키고 있거나, 거의 자취를 감추는 段階에 이른 것도 있다.

첫째, 합쇼體의 "-(으)ㅂ-"은 능침의 助詞 "요"에 依支한다.

〈보기〉 먹어요(먹읍니다, 먹읍니까, 먹읍쇼)

둘째, 叙法의 "-느-"와 "-더-"는 둘다 이른바 해體와 해요體로 統一되고 있다. 前者는 그러한 傾向이 매우 生產的으로 나타나며, 後者는 앞으로 生產性을 띠고 나타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60] 그러나 이러한 일은 終結語尾에만 局限되고, 非終結語尾에는 그렇지 않다.[61] "-(으)리-는 形態論的인 "-겠다"와 語彙論的인 "-(으)ㄹ 것이다"에 依支하는 것으

---

[58] 여기서는 前揭 筆者의 두 拙稿의 『Ⅳ. 體系의 動搖』와 더러 重複되는 곳이 있다.

[59] 現代前期國語는 20世紀 以前의 國語資料와 같이 이미 記錄되어 있다는 點에서 整理作業이 한 차례 있어야 할 必要를 느낀다. 資料 目錄에 對하여는 前揭拙稿, 『叙法硏究』, pp. 9—11 참조.

[60] 前揭拙稿: 『叙法硏究』 p. 101 참조.

[61] 이러한 事實이 或時 非終結語尾의 "-느-"와 "-더-"의 性格을 特徵 짓는 差異點이 아닐는지 모른다. 後考를 기다린다.

로 激甚한 動搖를 일으키고 있다.[62]

세째, 強調叙法의 原則法 "-(으)니-"는 形態論的인 "-는다"와 語彙論的인 "-는 법이다"에 依支하고, 確認法 가운데의 "-것-"은 "-겠다"에, "-(으)렷-"은 "반드시(꼭)·틀림없이 ……(으)ㄹ 것이다"에 各各 依支한다. 前者는 "-(으)리-"와 같이 激甚한 動搖를 일으키고 있고, 後者는 거의 자취를 감추는 段階에 있다.[63]

隨意的·膠着的 先語未語尾들이 動搖의 過程에 있기 때문에, 崩壞의 危機에 있다고 하겠으나, 分離的 先語未語尾는 微動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體系를 強化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것은 膠着的인 "-(으)니-", "-(으)리-", "-것-"을 浸蝕하는 것이 分離的 先語未語尾인 "-는(ㄴ)다"와 "-겠다"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 語尾의 動搖 狀況을 檢討함으로써, 國語의 語尾構造體가 複雜한 데서 簡素한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支配하는 重要한 原因은 形態論的인 乃至 語彙論的인 節次이다. 이러한 事實은 文體法(叙法)과 尊卑法의 體系를 根本的으로 바꾸어 놓는 動因이 되기도 할 것이다.[64]

Ⅵ. 結　論 (展　望)

몇 개 項目에 걸쳐 論述한 바를 要略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用言構造體는 語幹構造體와 語尾構造體로 分析되고, 語尾構造體는 語末語尾와 先語末語尾로, 다시 先語末語尾는 分離的·膠着的·隨意的인 것의 셋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先語末語尾들의 한 單語 속에서 차지하는 차례의 先後는 分布의 廣狹에 比例하는 것이 大部分이고, 部分的으로는 生產性의 多寡에 併行하는 일도 있다.

세째, 用言의 語尾構造體가 包含할 수 있는 先語末語尾의 數效는 모두 일곱이며, 따라서 그것이 보여 주는 文法範疇도 各各 달라서, 尊敬·時制·推測(叙想)·謙遜·尊卑法·叙法(叙實, 叙想)·強調叙法 등이다.

네째, 「큰사전」은 一定한 基準에 依하여 先語末語尾를 登錄하고 있다. 넓은 分布의 것은 分析的으로 다루고, 좁은 分布의 것은 綜合的으로 다루고 있다.

다섯째, 語尾構造體는 動搖하고 있다. 隨意的 先語末語尾는 形式의 廢棄와 함께 거의 안 쓰이는 段階에 있으며, 分離的 先語末語尾는 動搖는 커녕, 強化의 徵候마저 보인다. 곧 語尾構造體는 複雜에서 單純化의 길을 걷고 있다.

現代國語의 先語末語尾의 構造的인 研究만으로 作業이 끝나지 않는다. 語幹構造體의 構成要素인 接尾辭(造語性을 띤)가 보여 주는 차례의 先後와 分布의 廣狹, 그리고 中期語를 中心으로 하여 語尾構造體가 歷史的으로 어떻게 變遷해 왔는가 하는 問題들이 밝혀지는 날은, 우리의 先語末語尾의 構造的 樣相이 좀더 뚜렷해지리라 생각한다.

---

[62] 前揭拙稿: pp. 102—103.
[63] 前揭拙稿: pp. 101—102, pp. 103—104.
[64] 이러한 것은 앞으로의 研究를 기다린다.